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2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제2회 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 개최, 600여 개 사 참가

- 올해 '제2회 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11/26~30, 베이징시)'에 69개 국가·지역의 글로벌 500대 기업 78개 사, 중국 500대 기업 86개 사 포함 총 600여 개 사가 참가
- 동 박람회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 주최하는 최초 글로벌 공급망 주제의 국가급 박람회로 올해 전시면적은 12만 평방미터로 지난해(10만 평방미터) 보다 확대. 또한 '글로벌 공급망 촉진 보고서(2024년)', '글로벌 공급망 촉진지수', '글로벌 공급망 연결지수' 등을 발표

〈중국 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 사진 정보〉



- 박람회에서는 혁신적인 신제품, 신기술, 신공정 등이 최초 공개. 아울러 지식재산권 보호 및 상표 신청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여 국제 협력을 촉진. 전문가들은 이번 박람회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협력과 융합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자료원 : 인민망

http://paper.people.com.cn/rmrbhwb/pc/content/202411/27/content_30031635.html

2 中, 제25회 DMP 공업박람회 개최, 2,000개 사 참가

- '제25회 DMP 따완취(大湾区) 공업박람회(Greater Bay Area Industrial Expo, 11/26~29, 선전)'에 2,000여 개 업체가 참가, 최신 기술 성과를 선보이고 40여 건의 회의 및 포럼을 개최

* 따완취(大湾区) : 광둥(广东), 홍콩(香港), 마카오(澳门) 세 곳을 가리킴

- 전시회는 CNC공작기계, CNC공구,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 제품, 플라스틱 기계, 금형 제조, 정밀부품, 3D 프린팅 등 제조업 분야 위주로 하이텐(海天)그룹, 화웨이(华为), 샤오핑후

이티엔(小鹏汇天), 베이징징다오(精雕)그룹, 일본 화낙(FANUC) 등 유명 기업이 대거 참가, 참여국은 중국,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스웨덴 등임

- 한편 '산업 소프트웨어 성과' 및 '저공경제' 전시구역을 설치하여 전자·자동차·정밀금형·의료 기기·항공우주 등 분야에서의 응용방안을 선보임

자료원 : 중국경제망

http://expo.ce.cn/gd/202411/27/t20241127_39216914.shtml

3 中, 1~3분기 콜드체인 물류 총액 4.2% 성장

■ 중국물류구매연맹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콜드체인 물류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4.2% 성장한 6조 4,000억 위안이며, 이 중 3분기 성장률은 4.5%로 2분기 대비 0.8%p 증가. 1~3분기 냉동창고 건설 투자는 7.5% 증가한 365억 위안임

- 3분기 이후 신선 농산물 소비가 성수기에 접어들고 요식업 회복 및 신선품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콜드체인 물류 수요가 안정적으로 상승
- 기업의 신에너지 냉동차 구매가 급증, 1~3분기 신에너지 냉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231% 증가한 9,257대로 집계

자료원 : 인민망

http://paper.people.com.cn/rmrbhwb/pc/content/202411/27/content_30031623.html

4 中, 메디컬뷰티 시장에서 재생 소재 제품 인기

■ 중국의 메디컬뷰티 시장에서 재생 소재 제품이 인기로 올해에만 4종의 제품이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NMPA)의 의료기기 인증을 취득. 2021년부터 '동안주사', '소녀주사' 제품 등 현재까지 총 7종의 제품이 인증을 취득

- * 동안주사 : PLLA(Poly-L-Lactic Acid)를 주성분으로 피부 내 콜라겐 생성을 자극
- * 소녀주사 : PCL(Polycaprolacton)을 주성분으로 자연스러운 볼륨 생성 효과
- 화동제약(华东医药)의 이엔스(伊妍仕)는 소녀주사 제품으로, 중국 최초 인증취득, 2023년 판매액은 10억 위안을 돌파. 아이메이커(爱美客)의 루바이텐스(濡白天使)는 뛰어난 필러 효과를 보이며 2023년 판매액 11.6억 위안을 달성(전년 대비 81.4% 증가). 아이수페이(艾塑菲)의 출시로 장쑤우중(江苏吴中)은 1~3분기 매출액 16.5억 위안을 달성(전년 동기대비 9.6% 증가)
- 이 외 쓰환제약(四环医药), 러푸의료(乐普医疗), 상리바이오(尚礼生物) 등도 2026년까지 동안주사 제품 출시 예정. 루바이텐스(濡白天使)의 2024년 공식 판매가는 한 대(0.75ml)당 1만 2,800위안이나 실제 의료기관에서는 9,000위안으로 주사 가능. 이처럼 시중 제품의 증가로 인해 기업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

〈중국 NMPA 인증 취득 필러 주사〉

제품명	분류	사진	출시	개발사	핵심 성분
아이웨이란 (艾维岚)	동안주사		2021년 4월	창춘성보마 (长春圣博玛)	폴리락트산(PLA) + CMC-Na + 만니톨
이엔스 (伊妍仕)	소녀주사		2021년 4월	화동제약 (华东医药)	폴리카프로락톤(PCL) + CMC + 글리세롤
루바이티엔스 (濡白天使)	PLLA 필러		2021년 6월	아이메이커 (爱美客)	PLLA 미세구 + 히알루론산 + 리도카인
아이수페이 (艾塑菲)	동안주사		2024년 1월	장쑤우중 (江苏吴中)	폴리(DL-락트산, PDLLA) + CMC-Na + 덱스트린
수엔쩐 (塑妍真·真好)	소녀주사		2024년 9월	구위춘바이오 (谷雨春生物)	폴리카프로락톤(PCL) + CMC-Na + 글리세롤
수엔추이 (塑妍萃)	동안주사		2024년 9월	까오더메이 (高德美)	폴리(L-락트산, PLLA) + CMC-Na + 만니톨
푸리엔 (普丽妍)	동안주사		2024년 11월	난징푸리엔 (南京普丽妍)	PLLA 미세구 + CMC-Na + 만니톨

자료원 : 36kr

<https://36kr.com/p/3054028144480640>

5 中 상무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견결히 반대

-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2월 2일자로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데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힘
- 미국은 반도체 제조장비, 메모리 반도체 및 기타 품목의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136개 중국기업을 수출 통제 기업 목록에 추가함

자료원 : 신화망

http://intl.ce.cn/sjjj/qy/202412/03/t20241203_39222695.shtml

6 中, 실버서비스 소비 활성화 촉진

- 중국 민정부 등 24개 부처는 ‘실버서비스 소비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 조치’를 발표. 주로 △실버서비스 수급 개선, △새로운 실버서비스 형태 도입, △실버서비스 시설과 제품 개발 강화, △실버서비스 소비 보장 강화, △안전한 실버서비스 소비환경 조성 등 5대 분야의 19가지 조치를 제안
-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2035년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4억 명을 돌파,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산. 민정부는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 노인가구 200만 가구를 개조할 계획이며, 현재 172만 가구 개조를 완료했다고 발표

〈실버서비스 소비 활성화 5대 분야〉



- 핑안생명보험(平安人壽) 양정(杨铮) CEO는 “핑안그룹의 의료 생태계를 기반으로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여 요양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힘

자료원 : 중국매일경제망, 중국상보망

<http://www.nbd.com.cn/articles/2024-11-21/3654385.html>

<https://www.zgswcn.com/news.html?aid=229519>

7 中 전기차 업체, 홍콩 발판 삼아 글로벌 진출 가속화

- 중국자동차제조업협회(CAAM)는 11월 27일 중국 홍콩에서 제1회 자동차산업공급망포럼을 개최, 수십 명의 전기차 기업 및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홍콩을 통한 중국 본토 자동차 제조업체의 해외 진출 방안을 논의
- CAAM 사무총장 푸빙펑(付炳鋒)은 포럼에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해외사업 전개 시 무역 규제, 국제 표준 준수, 애프터서비스 등 일련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홍콩 지역이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신기술 도입을 위한 글로벌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
- 지난 8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 지난달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45.3%까지 인상. 이에 중국의 주요 전기차 기업은 유럽과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설립하고 아프리카와 동남아 진출을 모색
- 또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홍콩 시장을 확장하고 홍콩에서 신제품 테스트를 진행. 샤오펑(小鹏) 자동차는 지난 7월 홍콩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 지리(吉利) 자동차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인 지커(极氪)는 지난 7월 홍콩에서 6인승 전기차를 선보임

자료원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https://sc.mp/i5vpe?utm_source=copy-link&utm_campaign=3288393&utm_medium=share_widget